

공항철도, 코로나19와 전쟁

작년 4분기 대비 이용객 수 49.3% 감소
상황실 24시간 운영, 시설물 방역 강화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아시아, 미주, 유럽 각국이 이동금지령을 내리고 입국객을 제한하는 봉쇄정책이 시행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달리는 공항철도의 이용객 감소 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이용객은 49.3% 감소했으며, 탑승객 중 외국인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직통열차는 올해 초와 대비해 이용객이 90% 이상 감소했다. 하루 평균 5천여명이 탑승했던 직통열차는 지난 3월 11일에는 184명만 이용했다.

공항철도는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1월 21일부터 전 직원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급해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매주 간부회의를 열어 방역 활동을 철저히 점검하고, 1월 28일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신종코로나 감염병 대응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2월에는 공항철도 28개 전동차에 대한 방역 소독을 기존 주 1~2회에서 매일 1회로 확대 실시하고, 차내 설비와 역사 화장실, 발매기,

게이트, 승강 설비 등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은 살균 소독제로 수시로 청소했다. 또 방역물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전사 방역물품을 관리하고, 역사 내 임대매장 방역도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역무원, 기관사 등 분야별 비상 근무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본사 근무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한영 사장은 "공항철도는 감염증 발생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염 경로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과 위생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에는 대구·경북지역 주민과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항철도 임직원 538명의 정성과 사랑으로 모은 코로나19 특별성금 2천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공항철도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모아 조성한 '러브펀드' 기금과 지난 3일부터 별도로 모금한 코로나19 특별성금으로 마련됐다.

공항철도 사회공헌 담당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항철도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역사 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열차 내 모니터와 승강장 행선 안내기, 기관사 안내방송 등을 통해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❷